

올해의 자랑스런 KSLA인 코너에서는 2017년부터 KSLA의 이사진으로 활동하시면서 협의회와 대외협력 외연의 폭을 넓혀주신 심장섭 박님의 글을 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의 한세대를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함속에 열정과 적응을 가진 영원한 리베로 (Liberero), 이제 다시 !

심장섭 _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제 돌아보려 합니다. 누구는 ‘긴 기간 이었다’하고, 누구는 ‘벌써?’ 하고 아쉬워도 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 많은 것들을 집단지성으로 반납하고, 이제는 인생 제2막의 또 다른 새 길을 시작합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時의 전문(全文)입니다.

『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

이제는 그동안 못 보던 꽃도 보게 된 만큼 매사에 더 잘 해 보려고 합니다.

1972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STIMA)에서 시작된 전문도서관협의회는 벌써 47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KSLA)로 확대개편이후 1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협의회에서 필자는 문헌정보 정보화 부분과 글로벌협력의 역할을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이같은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지난 활동기간을 회상해 봅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 !!!

우리나라에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그 전 세대와도 차별되고 그 후 세대와도 차별되어 회자되는 '58년 개띠'라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과 격변속에서 태어나 변화를 만들고 변화에 대응하며 치열하게 살아간 베이비붐 세대 중 처음으로 77만 명이 넘게 태어나면서, 수많은 경쟁과 변화를 겪은 첫 세대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필자였습니다.

대학 졸업이후, 우리나라 정보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연구소 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나라 정보통신혁명의 신호탄이 된 중요한 발표가 되었던 '제5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1981.8. 발표)이 발표 되었으며, 핵심적으로 전자교환기(통신기기)와 반도체, 컴퓨터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자교환기 개발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팀에 합류된 필자는 전자교환기 국산화 사업에 투입되어 국내외 연구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자교환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으로 선정되어 스웨덴의 L.M.Ericsson사 연구소에 파견되어 공동개발과 기술개발연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TDx 전자교환기가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지금의 통신선진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파견시절에 문서화 (Documentation)와 선진화된 자료 관리 기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필자와 도서관의 좋은 인연이 시작된 듯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 !!!

세월이 흘러, 1991년 우리나라에 인터넷과 PC통신 천리안이 보편화 되면서, 전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쟁 체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었고, KT에 이어 제2국제전화 서비스 허가를 데이콤에 부여하면서 그 역할의 수행을 위해 DACOM으로 이직이 되어 정보통신부가서비스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독립에 이어 소프트웨어를 독립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종합연구소도 대덕연구단지로 신축 이전하여 대덕 연구단지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성과로는, 지능망서비스의 국산화 개발

을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신기술마크 (KT마크)를 수상하였고, 국제, 시외, 시내전화 사업의 경쟁체제가 시작되면서 데이콤 뿐 만이 아니고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에도 외산제품이 아닌 순수 국산 개발시스템과 서비스로 대국민 상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입대체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자립화라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선통신뿐 아니라 무선통신 모바일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대중화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벤처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른바 닷컴버블(IT버블) 현상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닷컴시장에서 발생한 투기/투매현상의 시기에 편승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코스닥시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기업 육성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IT버블이 불타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옛말과 같이 1997년 11월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구제 금융시대에 진입하였고, 2001년이 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간 벤처회사에서의 치열한 삶 !!!

이때 전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구조조정으로 축소되고 사서들도 축소 운영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서관 정보화의 필요성이 부각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화와 자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도서관 축소가 데이콤에서

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닷컴열풍에 휩싸여 데이콤에서 벤처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이사로서 연구 소장직을 수행하기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개발 완료하고 법제도를 만들어 각종 방송국과 서비스를 개시할 때의 만족감은 굉장했었습니다. 현재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번호 문자메세지 서비스입니다. 요금이 부과되는 특정 전화번호를 방송시스템에 설치하고 방송 중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각종 의견이나 사진 그리고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였습니다. 문자메세지를 통한 쌍방향 소통서비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공공 영역으로 그러나 변화의 물결 속에서 !!!

2003년 8월 더운 여름, 17년간의 민간영역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정보화추진팀장으로 공채 보임되어 공공영역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TP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흥망성쇠를 같이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로 기관명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ICT 연구개발진흥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한 역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정부마다 기관의 이름과 위상이 출렁이는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IITA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해 새롭게 출범한 전담기관이고, 연 1조원 내외의 정보통신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정보화의 필요성이 절실 하였기에 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으로 2003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절은 기관내에서 정보화 담당하는 조직과 도서관(자료실)을 운영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역할만 하였습니다. 단지 자료연계를 통해서 포털에 서비스해 주는 기능만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22개 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이두레프로젝트와 재정집행을 통합연계한 재정집행통합관리정보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 정부의 정부포털 업무관리시스템과 디브레인 시스템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e·Dü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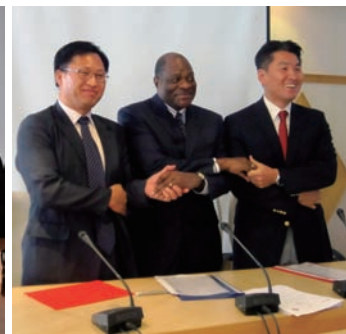
2008년 세계를 덮친 금융 위기 중에 새롭게 출범한 MB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또 다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제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그해 8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NIPA는 공공기관 선진화 2차 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 산하 IT관련 3개기관(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

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비 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내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필자는 정보팀을 떠나 사업지원단장의 보임을 받고 대전에 있는 2개팀과 서울에 있는 2개팀을 담당하게 되어 일주일의 반은 대전, 나머지 반은 서울 근무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IT기술의 해외확산을 위해 글로벌 협력사업에 치중하게 된 계기가 된 시기였습니다.





2013년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직제로 부
활되면서, NIPA의 기능 중, 전담관리기관기능이 IITP
로 분리 재정비 되었습니다.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
흥원(NIPA) 부설기관으로 새출발한 IITP는 NIPA,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분산된 ICT
R&D 전담기능을 통합하여 전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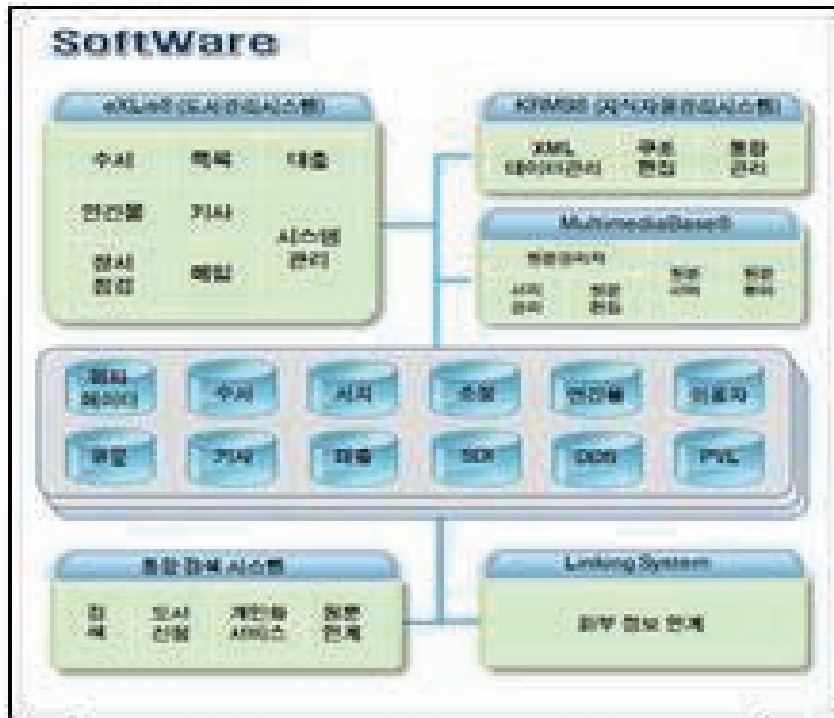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도서관도 진천과 대전으로 다시 분리되
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KSLA에도 독립적으로 재가입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사용하던 광주과기원의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시스템 (KORSA 도서관리용 ASP 시스템) 이 2016년
5월에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두드림시스템으로 전환작
업을 완료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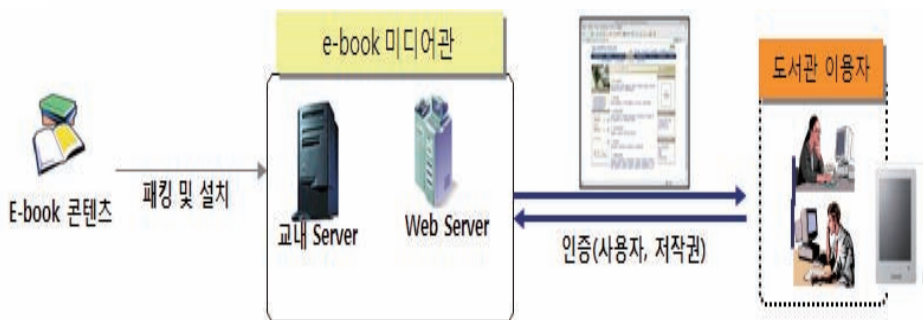
기관내 도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세종도서 보급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년 연속 학술부문 도서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원내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e-Book 미디어관을 구축하여 전자도서관 기능을 대 폭 향상 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기

관명을 바꾸고,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전담기관 두 곳이 한 지붕 아래로 통합되었습니다. 부처 한 곳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기능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료통합관리시스템 SW구성도〉



그리고 마무리 !!!

이 시기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년 임기의 5기 이사로 활동하면서, 협회회의의 글로벌협력 부분과 정보화부분에 치중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몽골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의 한국도서관대회 초청 참석과 발표를 통하여 상호관계개선의 출발점이 되었

으며, 태국과 베트남 전문도서관협의회와의 교류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관 사서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교류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 국가를 넘어 남미 등 다른 대륙 국가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후배들에게 숙제로 남기고 이사 임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0237호 인문

심장섭 ITTP 위원, 몽골서 'ICT 최우수 공로자' 수상

심장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TP) 연구위원이 최근 친바르야브 몽골 정보통신기술청으로부터 'ICT 분야 최우수 공로자 메달'을 수상했다. 몽골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외국인이 수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몽골 정보통신기술청은 ICT 기술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2015년 ITTP와 ICT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ITTP는 직접 주관하는 톱시(TOPCIT) 평가를 몽골에 보급·확산, 우수 소프트웨어(SW) 인력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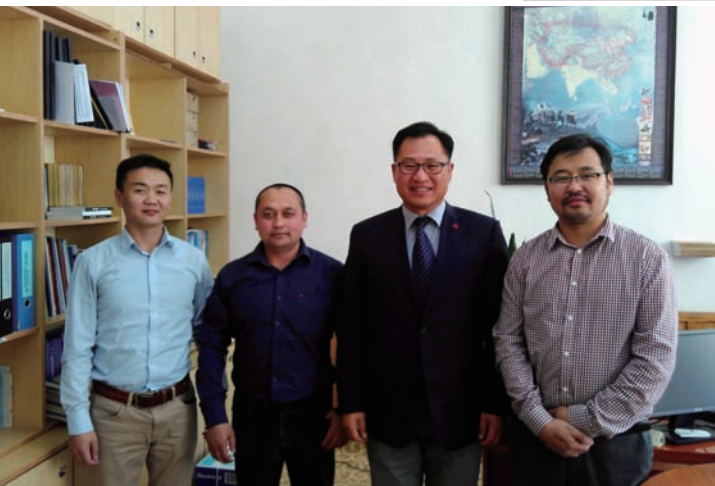
심장섭 ITTP 연구위원은 "글로벌 IC



심장섭 ITTP 연구위원이 몽골 정부로부터 'ICT 분야 최우수 공로자 메달'을 수상했다.

'인재 양성 노력이 상호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몽골 간 협력 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jh@etnews.com





사명당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려 하였으나 뜻밖에도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이었다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처음에는 공공 업무에서 이렇게 정년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필자는 실력 있는 사람, “뺨”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들이 못 당한다는 명이 긴 사람인가 봅니다. 업무로서 만났지만 KSLA와 함께 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정년의 해까지 이사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하면서 인생을 배웠으니 이런 혜택이 또 어디 있겠

습니까?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는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났을 때의 향기가 더 많이 나고, 깔끔한 여운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KSLA에서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 자신도 행복해지겠습니다. KSLA에서 ‘자랑스런 KSLA인’이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역사 속에서도 항상 KSLA를 기억할 것이며 KSLA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